



전경련 국제동향

5월 3째주

국제본부 국제경제팀

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

- ① 상무부·국가발개위,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
- ② 국무원 판공청, 일반항공업 발전 지도 의견 발표
- ③ 상무부, '16.1월~4월간 대외투자 협력 통계 발표

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

- ①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 관련 동향(농림 수산분야)
- ② 日 2016 경제재정 운영방침 핵심내용
- ③ 일본, 경상수지 흑자 확대(2015 회계연도 국제수지 동향)

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

4 이란,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

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

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

□ 정보출처 :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

1-1 상무부 · 국가발개위, 12개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시범지구 선정

○ 5.16(월) 상무부 ·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‘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실시회의’를 개최, 총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개방형 경제 운영 · 관리 新 모델 구축을 총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

- (시범사업 6대 목표) △각 시범구 · 산업단지간 협동 · 개방 新 체제 구축, △국제 투자 · 협력 新 방식 추진, △품질 · 효율 중심의 新 대외무역 시스템 구축, △전방위적 개방 新 구도 모색, △개방형 경제 新 금융 서비스 조치 실시

※ 12개 개방형 경제 운영 · 관리 新 체제 시범지구 리스트

- (시(市)급 지역): 산둥성(山東省) 지난시(濟南市), 장시성(江西省) 난창시(南昌市), 허베이성(河北省) 탕산시(唐山市), 푸젠성(福建省) 장저우시((水+章)州市), 광둥성(廣東省) 둥관시(東莞市), 광시장족자치구(廣西壯族自治區) 팡청강시(防城港市)

- (신구(新區): 상하이 푸둥신구(浦東新區), 충칭 량장신구(兩江新區), 산시(陝西) 시시엔신구(西咸新區), 다렌 진푸신구(金浦新區)

- (도시권역 · 산업단지) 우한도시권(武漢城市圈), 쑤저우(蘇州)공업단지

○ 상무부 선단양(沈丹陽) 정책연구실 주임 겸 대변인은 현재 개방형 경제 新 체제 구축에 여전히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는바,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제도 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

○ 동인은 기존 선정 · 운영 중인 자유무역시범지구(이하 ‘FTZ’)와의 차이점에 대해 FTZ는 주로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 등 적용 범위가 좁고, 무역 · 투자 개방과 새로운 무역 규범 구축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반면, 개방형 경제 新 체제 종합 시범사업 시범지역은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관리 모델, 공공서비스 체제 개선 등 지방정부 · 부처의 체제 변혁 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

- 5.17(화) 국무원 판공청은 <일반항공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>을 통해, △ ‘20년까지 500개 이상 일반항공 공항을 건설하고, △일반항공기 5,000대 이상 보유, 연간 비행시간 200만 이상에 달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일반항공 기업을 육성하여, △1조 위안 이상 규모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
- (항공시장 육성) △단거리 운송 시스템 발전, △산간지역 및 지면(地面) 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등 대상 항공 교통 서비스 기능 강화, △재난·의료 구조 등 공익 서비스 기능 강화, △공업·농업·임업 분야 이용 확대, △관광·스포츠·인터넷·컨텐츠 등 융합발전을 통한 신형 소비 촉진
- (공항건설 확대) △지역간 균형 고려, △공항건설 관련 합리적 표준 제정, △심사·허가 절차 보완
- (산업구조 전환·업그레이드 추진) △자주혁신 능력 강화, △핵심기술 보유, △신기술 응용 범위 확대, △종합시범구 혹은 특별시범구 지정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
- (저공 공역 개방) △연직거리 3,000 미터 이하 내 감시공역*과 보고공역 연계 이용 허용, △비행 등록·심사 절차 간소화, △심사기한제 도입

* 중국의 저공공역 관리 체계

- ‘12년 <저공공역관리개혁지도의견>에 따라 △122개의 관제공역, △63개의 감시공역 및 △69개 보고공역을 설정
- 관제공역: 비행 계획을 사전 심사 받은 후 비행 할 수 있으며, 비행관제 당국의 관제 및 지휘를 받는 공역
- 감시공역: 비행 계획을 등록한 후 비행 가능하며, 비행관제당국의 비행상태 감시를 받는 공역
- 보고공역: 비행 계획 등록 후 비행 가능한 지역

- 5.16(월) 상무부 발표 '16.1월~4월간 대외투자 협력 통계에 따르면, 동 기간 △중국의 비(非) 금융 분야 해외직접투자(ODI) 금액은 3,914.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1.8%로 급증했고, △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 계약금액은 3,804.2억 위안으로 3.8% 증가했으며, △중국인 해외 파견 노동자는 총 98.3만 명을 기록
- 상무부 협력사(合作司) 담당자는 '16.1월~4월간 대외투자 협력 중 △중국의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, △일대일로 관련 국가와의 협력 및 △중국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 증가 등이 가장 특기할만한 점이라고 소개
- (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) 동기간 중국이 수주한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건수는 2,133개로 전년 동기대비 40% 증가했으며, 신규 계약 금액은 432.5억불 기록

*주요 해외 기초시설 건설 수주 프로젝트

-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의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항구 건설(9.33억 달러)
- 중국건축총공사의 알제리 공항 新 터미널 건설 및 16개 전력 시설 프로젝트(68.1억 달러)
- 상하이전기송배전공정공사의 콩고 송배전 케이블 시설 및 21개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(52.8억 달러)
- 상하이전기그룹의 이집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(26.36억 달러)
- (일대일로 관련 국가 협력) △중국기업의 일대일로 관련 49개 국가 직접투자(FDI) 금액은 49.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% 증가, △일대일로 관련 60개 국가로부터 중국이 수주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1,401개, 신규 계약 금액은 311.2억 달러로 58.9% 증가
- (서비스업 투자 증가) 중국기업의 해외 서비스업 투자금액은 438.4억 위안으로 73.2% 증가했으며, 특히 과학 연구·기술 서비스, 식음료·숙박, 문화·스포츠·엔터테인먼트, 교육 등 4대 업종 투자가 2배 이상 증가

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

□ 정보출처 :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

2-1 일본 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 관련 동향(농림 수산분야)

1. 농림 수산성, 구마모토 지진 피해현황 조사결과 발표(5.9)

- (농경지·농업용 시설피해 집중) 일본 농림수산성은 5.9일 구마모토 강진 여파로 큐슈 7개현*의 식료공급·농림수산 분야에서 총 1,085억 엔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.
-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, 농경지 및 농업용 시설 관련 피해금액이 490억 엔으로 가장 크고 농작물 재산손실도 287억엔에 달하는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집중하였으며, 임야(289억 엔) 및 수산업 분야 (20억 엔)에서도 크고 작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
- 지역별로는 구마모토현의 피해규모가 1,073억엔에 이르면서 큐슈지역 전체 피해액의 99%를 차지
- (피해농가 긴급 지원 대책 마련) 농림수산성은 모내기철을 앞두고 피해 농가의 조기 복구 및 원활한 경영재개 지원을 위해 △복구지원금 특례 제도 활용(정부 사전승인 전에 임의 집행), △전작지원금 실시(쌀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작물재배로 전환할 경우 지급), △일본정책금융공고 5년간 무이자 융자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

<구마모토 지진의 경제적 피해현황(농림수산 분야)>

구분	피해내역	피해 범위	피해액(억엔)	피해지역
농작물 등	농작물 등 손상	195ha	1.1	구마모토/오이타
	가축 피해	541,330마리	9.8	구마모토/오이타
	공동이용시설 파손	185개소	142.9	구마모토/오이타
	농업용하우스 파손	113건	5.2	구마모토/오이타
	축사 등 파손	1,163건	127.6	구마모토/오이타
소계			286.6	
농경지·농업용 시설 관련	농지 파손	3,035개소	88.2	구마모토/오이타/사가/나가사키/후쿠오카/미야자키/가고시마
	농업용 시설 등 파손	3,158개소	401.7	
	농업용 시설(호수/수로 등)	3,127개소	371.9	
	농지해안보전시설	28개소	28.0	
	농촌생활환경시설	3개소	1.8	
소계			489.9	
임야 관련	임지 피해	381개소	256.5	구마모토/오이타/사가/나가사키/후쿠오카/미야자키
	치산시설	22개소	18.4	구마모토/오이타
	임도 시설 등	1,621개소	8.5	구마모토/오이타/사가/미야자키
	임재가공시설/유통시설 등	19개소	5.6	구마모토/오이타
소계			289.1	
수산 관련	양식시설	17건	조사 중	구마모토
	수산물	11건	0.3	구마모토/오이타
	어항 시설 등	16개소	19.4	구마모토/오이타/나가사키
	공동이용시설	11건	0.4	구마모토/나가사키
소계			20.1	
합계			1,085.6	

*출처: 농림수산청(5.9)

2. 일본정부, 구마모토 지진 ‘비상재해(대규모 재해부흥법)’ 지정

○ (재해복구 사업예산 1조엔 배정) 일본정부(5.9 지진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)는 구마모토 지진을 「대규모 재해부흥법」에 의거하여 ‘비상재해’로 지정하고 (정부 재정 보조율 80~90% 수준),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7,000억엔 규모의 재해대책비를 계상할 방침임.

- 응급 가설주택 건설, 이재민 생활지원금 지급,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위한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1조엔을 배정할 예정이며, 2016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(3,500억엔)와 추경예산(지진복구 예비비 창설)을 활용할 계획
- 추경 자원은 신규 국채발행 없이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지출 감소분(약 2조엔)을 통해 충당할 계획(13일 각의결정 후, 17일 성립 목표)

- (고용유지 지원금 확충) 또한, 후생노동성은 휴업 및 근로자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강구하는 기업(사업주)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을 확충하기로 결정함.
-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지원금(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)의 3분의 2에서 5분의 4로,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인상
-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으로 자격요건을 완화
- (지진피해지 단체장, 재정 지원규모 확대 요청)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는 아베총리와의 면담(5.9)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건물이 한신·아와지 대지진의 2배 수준(14,000건)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, 특례법 조치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.
- (방위성, 자위대원 배치 축소) 반면, 방위성(5.9)은 구호물자 수송 및 급식지원 등의 활동이 일단락됨에 따라 재해대책을 위해 편성한 부대를 철수시키고, 피해 복구에 투입한 자위대원을 현행 21,000명에서 13,000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함.

2-2 日 2016 경제재정 운영방침 핵심내용

1. 일본 경제재정 운영방침(骨太방침) 핵심내용 발표
 - 일본정부는 5.11 경재재정자문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방침(骨太방침)의 핵심내용을 발표, 아베 정권이 표명하는 명목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력 강화를 위해 육아지원, 개호환경 정비 등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을 강조함.
 - 일본정부는 2016.5월 둘째주중으로 骨太방침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으로, 2016.5월 내의 각의결정을 지향
 - 조만간 수립될 ‘일본 1억 총 활약 플랜’에서 骨太방침의 사회보장정책 구체화 및 수치목표를 설정하고, ‘일본재흥전략(성장전략)’에도 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시킬 예정

- 금번 骨太방침은 전년에 이어 기본방침으로 ‘경제성장 및 재정재건의 양립’ 을 표명, 동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“600조엔 경제 및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·경제재생 및 성역 없는 세출개혁을 추진할 것” 이라고 언급함.
- 경제성장과 관련, 노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, 소비환기의 중요성을 호소
- 재정재건과 관련, 2020년도의 기초재정수지(PB) 흑자화를 위해 2015년 수립한 ‘경제·재정재생 계획’ 등을 통해 경제·재정 일체개혁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

<2016 骨太방침의 주요 내용>

일본 경제 과제 대응	- 구마모토 지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기 복구 추진
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	- 노동력인구 확보를 위해 ‘자녀·육아지원’, ‘여성 활약 추진’, ‘개호환경 정비’ 등 사회보장정책 추진,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- 성장전략 가속을 위해 인재 육성, 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확대 - 임금 인상·가처분소득의 확대·대형세일 도입 등을 통한 개인소비 환기 - 아베노믹스로 인한 세수 증가를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으로 활용 등
경제·재정 일체개혁 추진	- 효과가 높은 정책에 지출하는 ‘현명한 예산집행(wise spending)’ 강화

2. 2016 骨太방침의 특징 및 우려

- 금번 骨太방침에서 일본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을 강조한 것은, 저출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인구를 늘려 일본 경제의 성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.
- 또한,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개호이직을 방지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
- 그러나 재원으로 상정중인 ‘경기회복에 의한 세수 증가’ 는 경기 의존적으로, 안정 재원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, 현재 사회보장비의 효율화도 미진한바, 정책운용을 잘못하면 재정건전화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음.
- 또한, 사회보장재원에 총당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(2017.4월 실시 예정)이 연기 되면 재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우려

- 한편, 일본정부의 목표인 2020년경 명목GDP 600조엔 달성에는 명목 3%, 실질 2%의 성장률이 필요하나,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시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'잠재성장률'이 0.5% 미만에 불과하여 실현은 불투명

2-3 일본, 경상수지 흑자 확대(2015 회계연도 국제수지 동향)

1. 주요내용

1. (경상흑자, 동일본대지진 이전수준 회복) 일본의 2015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(8.7조엔) 대비 106.0% 증가한 17.9조 엔을 기록함.
 - (무역수지, 5년 만에 흑자 전환) 유가약세 효과로 전년 6조 5,890억엔 적자에서 6,299억엔 흑자로 전환
 - (서비스수지 적자, 역대 최소) 여행수지 흑자규모 및 지재권등사용료 수익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전년 2조 7,252억엔에서 1조 2,109억엔으로 축소
 - (본원소득수지 흑자, 역대 최대) 해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(배당·이자) 확대로 흑자규모는 전년 19조 9,755억엔에서 20조 5,611억엔으로 증가
 - (이전소득수지, 적자 확대) 경상이전지급(해외 송금, 기부금, 구호물자 등) 증가로 적자규모는 전년 1조 9,368억엔에서 2조 48억엔으로 확대
 - (금융계정, 유출확대) 유출초(유출>유입) 규모는 해외 M&A 및 주식·채권투자 증가로 전년 13조 7,595억엔에서 24조 5,338억엔으로 큰 폭 확대
 - (3월 당월, 21개월 연속 흑자) 2016년 3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흑자 증가로 전년 2.8조엔에서 3.0조엔으로 확대
2. (경상흑자 호조세 지속 여부 불투명) 시장 전문가들은 2015년도 실적 관련, 경상수지 흑자 급증의 근본적 원인은 유가약세·엔저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, 최근 시장상황 변화(엔저 둔화) 및 유가반등 가능성 등

감안시 경상흑자 확대 추세가 2016년도에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 다수

<일본의 국제수지 동향(회계연도)>

단위: 억 엔, 증감은 전년비(%)

	2012	2013	2014	2015	2016		
					1월	2월	3월
1. 경상수지	42,495 (△48.1)	23,930 (△43.7)	87,245 (264.6)	179,752 (106.0)	5,208 (425.0)	24,349 (63.7)	29,804 (6.9)
1.1 무역수지	△52,474 (137.5)	△110,455 (△99.8)	△65,890 (△40.4)	6,299 (△110)	△4,110 (△51.6)	4,252 (△203.5)	9,272 (38.6)
(수출)	622,026 (△1.0)	697,326 (12.1)	756,369 (8.5)	731,355 (△3.3)	53,550 (△99.9)	56,431 (△5.5)	63,316 (△11.4)
(수입)	674,499 (3.7)	807,782 (19.8)	822,259 (1.2)	725,057 (△11.8)	57,660 (△19.8)	52,179 (△14.6)	54,044 (△16.6)
1.2 서비스수지	△40,280 (42.8)	△34,330 (△14.8)	△27,252 (△20.6)	△12,109 (△55.6)	△2,267 (△4.01)	1,595 (△338.1)	2,429 (57.9)
1.3 본원소득수지	144,825 (1.2)	183,193 (26.5)	199,755 (9.0)	205,611 (2.9)	13,310 (△5.7)	20,451 (10.2)	21,317 (△8.6)
1.4 경상이전수지	△9,577 (△12.4)	△14,477 (51.2)	△19,368 (33.6)	△20,048 (3.5)	△1,726 (102.6)	△1,948 (18.8)	△3,215 (△12.5)
2. 금융수지	14,719	△9,829	137,595	245,338	12,154	31,667	53,558

* 일본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(IMF)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「제1차 소득수지」와 「제2차 소득수지」로 명칭 변경

II. 상세내용(5.12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)

1. 2015 회계연도(2015.4-2016.3) 동향

□ (경상수지) 무역수지 흑자 전환, 본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전년(8조 7,245억엔) 대비 106.0% 증가한 17조 9,752억엔 흑자 기록 (동일본대지진 이전 수준)

○ (무역수지) 유가약세에 따른 광물성연료 수입 감소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(△6조 5,890억엔) 대비 흑자(6,299억엔)로 전환

- (수출) 73조 1,355억엔(전년대비 3.3% 감소)으로 3년 만에 감소

- (수입) 72조 5,057억엔(전년대비 11.8% 감소)으로 6년 만에 감소

<참고①> 4.27 재무성관세국 발표 2015년도 무역통계(통관기준, 수출 확정치, 수입 속

보치)

* 수출: 74조 1,175억엔(전년대비 금액 Δ 0.7%, 물량 Δ 2.7%)

- 주요지역별: 對아세안(Δ 4.1%) 등이 감소

- 상품별: 철강(Δ 15.6%) · 광물성연료(Δ 20.7%) · 유기화합물(Δ 14.3%) 등 감소

* 수입: 75조 1,996억엔(전년대비 금액 Δ 10.3%, 물량 Δ 1.9%)

- 주요지역별: 對중동(Δ 39.1%) 등 감소

- 상품별: LNG(Δ 41.4%) · 원유(Δ 37.9%) 등 감소<참고②> 2015년도 엔/달러 환율(은행간 현물시세,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, 도쿄시장)

- 120.13엔/US\$(전년 109.75엔/US\$ 대비 9.5% 엔 절하)

<참고②> 2015년도 엔/달러 환율(은행간 현물시세,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, 도쿄시장)

- 120.13엔/US\$(전년 109.75엔/US\$ 대비 9.5% 엔 절하)

○ (서비스수지) 1조 2,109억엔 적자

- 당월기준 여행수지(1.3조엔) 및 지재권 등 사용료수지(2.4조엔)가 1996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대비(Δ 2.7조엔) 적자규모 큰 폭 축소

○ (본원소득수지) 20조 5,611억엔 흑자

-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 따른 배당 · 이자소득 증가로 전년(19조 9,755억엔) 대비 흑자폭 확대(198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수준)

○ (이전소득수지) 2조 48억엔 적자

- 경상이전지급(해외교포 송금, 자선단체 등의 기부금 · 구호물자 등) 증가로 전년(Δ 1.9조엔) 대비 적자폭 확대

□ (금융계정) 금융계정 유출초(유출>유입) 규모는 해외 M&A 및 주식·채권 등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전년 13조 7,595억엔에서 24조 5,338억엔으로 확대

가. 금융수지·자산(거주자의 투자)

- ① 대외직접투자: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 증자인수 등으로 16조 9,930억엔 자산증가
- ② 대외주식·투자펀드지분투자: 신탁회사의 취득초과 등으로 17조 6,831억엔 자산증가
- ③ 대외중장기채투자: 생명보험회사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20조 6,067억엔 자산증가

나. 금융수지·부채(비거주자로부터 투자)

- ① 대내직접투자: 해외자회사의 국내모회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△5조 5,880억엔 부채증가
- ② 대내주식·투자펀드지분투자: 수송기기업종 등에 대한 주식처분 초과 등으로 △5조 5,880억엔 부채감소
- ③ 대내중장기채투자: 중장기국채 등에 대한 취득확대 등으로 9조 4,742억엔 부채증가

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

□ 정보출처 :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

3 인도네시아 2016년 1분기 주요 경제 동향

- (경제성장률)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.92%를 기록하여, 당초 기대치(인니 중앙은행 5.1% 예상)에 미치지 못함
- 민간 소비지출은 5%대 성장을 유지하였으나, 정부 지출이 2.93%에 불과하며 '15년 4분기 7.31%에 비해 크게 하락
- 다만 중앙정부는 1분기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의 14.6%만 지출된 상황(193.5조 루피아)으로, 향후 정부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(향후 전망) 방방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이 2~3분기에 보다 증가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.3%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
- Fitch 신용평가사는 공공인프라 건설 및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2분기부터 5.2%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인니 민간 은행(Mandiri, Maybank)도 2016년은 5%를 상회할 것으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, 대외 경제 위기는 상존함을 강조
- (무역) 1분기 무역수지는 16.4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으며, 2015년 4분기 4.5억불 흑자에 비해 증가한 수치
- 1분기 총수출 335.8억불 중 ▲석유가스부문(34.5억불), ▲비석유가스부문(301.3억불)이며, 총수입 319.4억불 중 ▲석유가스부문(38.7억불), ▲비석유가스부문(280.7억불)로 구성
- 다만 1분기 전체 교역량은 전년동기비 13.5% 감소하여,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불황형 흑자인 상황

<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>

단위 : 억불

구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 1월	2월	3월	'16년 1분기
총교역액	3,817	3,728	3,542	2,930	209.5	214.8	230.9	655.2 (-13.5%)
수출 (증가율)	1,900 (-6.6%)	1,826 (-3.9%)	1,760 (-3.6%)	1,503 (-14.6%)	104.8 (-20.7%)	113.1 (-7.2%)	117.9 (-13.5%)	335.8 (-14.0%)
수입 (증가율)	1,917 (8.1%)	1,866 (-2.7%)	1,782 (-4.5%)	1,427 (-19.9%)	104.7 (-17.2%)	101.7 (-11.7%)	113.0 (-10.4%)	319.4 (-13.0%)
무역수지	-17	-40	-22	76	0.1	11.4	4.9	16.4

* 자료출처 : 인도네시아 통계청

□ (금융)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

○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 6.75% (5.10現在)

* 아세안 주변 경쟁 국가인 필리핀(4%대), 말레이시아(3%대), 태국(1%대)와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는 높은 편이어서, 추가 인하 여지 존재

○ 환율은 달러당 13,300루피아 전후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

<인도네시아 주요 금융지표>

년도	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.1월	'16.2월	'16.3월
기준금리(%)	년/월말	5.75	7.50	7.75	7.50	7.25	7.00	6.75
루피아/달러	년/월말	9,670	12,189	12,440	13,864	13,846	13,395	13,276
주가지수	년/월말	4,317	4,274	5,227	4,593	4,615	4,770	4,816
인플레이션 (%)	년/월말	4.3	8.4	8.4	3.35	4.14	4.42	4.45
	평균	4.3	7.0	6.4	6.4	-	-	-
외환보유고 (억불)	년/월말	1,129	994	1,119	1,059	1,021	1,045	1,075

* 자료출처 : 인도네시아 중앙은행

□ (투자) 1분기 투자액은 총 146.5조 루피아로 전년동기비 17.6% 상승하며 올해

목표치인 594.8조 루피아의 24.6%를 달성

○ 외국인투자(FDI)는 96.1조 루피아(전년 동기비 17.1% 증가), 내국인투자(DDI)는 50.4조 루피아(전년 동기비 18.6% 증가)로 구성

* FDI 산업별 순위 : 종이·인쇄(19억불), 화학·제약(9억불), 운수·창고·통신(8억불), 금속·기계·전자(7억불), 식품(5억불) 順

* DDI 산업별 순위 : 식품(8.9조 루피아), 작물·조림(8.8조 루피아), 화학·제약(5.7조 루피아), 전기·가스·용수(5.1조 루피아), 운수·창고·통신(5.0조 루피아) 順

○ 국가별 투자로는 싱가포르 28.6억불, 일본 15.9억불, 홍콩 5.0억불, 중국 4.6억불, 네덜란드 2.6억불, 한국 1.9억불, 태국 1.7억불 順

<최근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>

단위 : 백만불

순위	2013년		2014년		2015년		2016년 1분기	
	1	일본	4,712.9	싱가포르	5,832.1	싱가포르	5,901.1	싱가포르
2	싱가포르	4,670.8	일본	2,705.1	말레이시아	3,076.9	일본	1,589
3	미국	2,435.8	말레이시아	1,776.3	일본	2,876.9	홍콩	506
4	한국	2,205.5	네덜란드	1,726.3	네덜란드	1,307.7	중국	464
5	영국	1,075.8	영국	1,588.0	한국	1,213.4	네덜란드	266
6	네덜란드	927.8	미국	1,299.5	홍콩	937.2	한국	188
7	버진아일랜드	785.7	한국	1,126.6	미국	893.1	태국	173
8	모리셔스	780.0	중국	800.0	버진아일랜드	730.5	버진아일랜드	171
9	말레이시아	711.3	홍콩	657.3	중국	628.3	말레이시아	101
10	태국	402.6	호주	47.3	영국	503.2	카이만군도	92

* 자료출처 :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

4 이란,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

□ 정보출처 : 주이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

4 이란, FIPPA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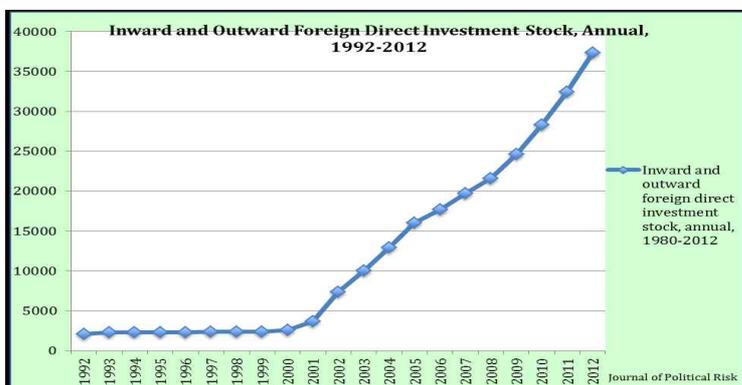
가. 현황

- 경제제재로 인한 리알 가치 하락과 정치적 위험요소로 인하여 주변국에 비하여 투자액이 적은 편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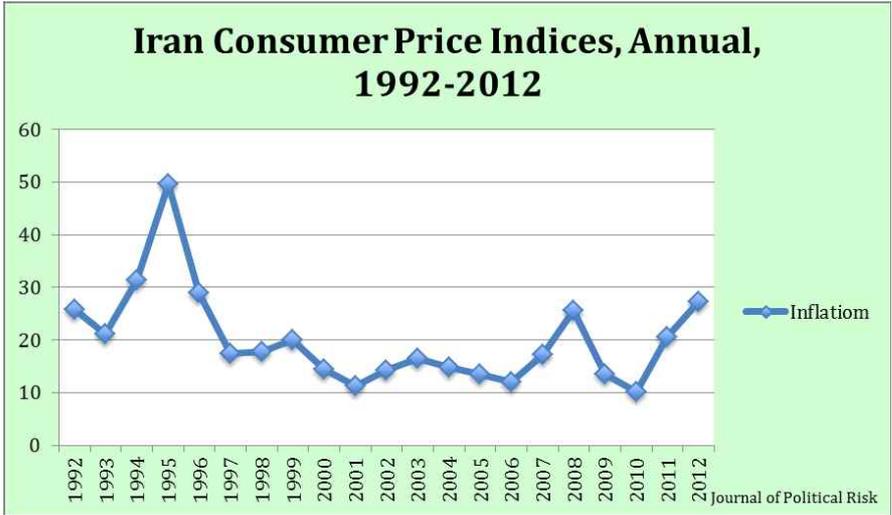
※ (그림) 이란과 주변국의 외국 투자 현황

- 주요 투자국은 유럽, 캐나다, 아랍 에미리트와 대한민국임.
-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14~17% 상승되었으며, 투자 금액의 70%는 석유 및 가스산업임.
- 이란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음(아래 도표 참조)



-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리알의 가치가 급락한 이후,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요소가 더욱 많아짐. 이란 정부의 FIPPA 시행에도 불구하고,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의 불가능함과 불안전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려함.

※ (그림) 이란 소비자 가격 지수



나. 유럽 투자 현황

- 2009년 이후 유럽은 13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, 금액은 총 52억 달러에 달함.

※ (표) 유럽 주요 투자국 및 프로젝트 수

국가	금액	프로젝트 수
독일	22억 달러	40개
네덜란드	19억 달러	5개
프랑스	4.5억 달러	12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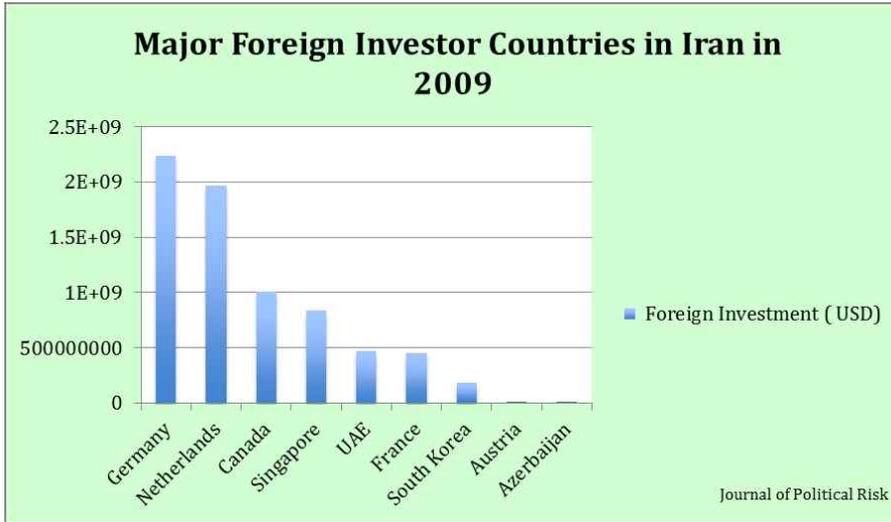
다. 아시아 투자 현황

- 2009년 이후 아시아는 52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, 금액은 총 185억 달러에 달함.

※ (표) 아시아 주요 투자국 및 프로젝트 수

국가	금액	프로젝트 수
싱가포르	8.3억 달러	3개
아랍 에미리트	4.6억 달러	5개
대한민국	1.8억 달러	3개

※ (그림) 2009년 주요 투자국



라. 혁명수비대 이슈

- 혁명수비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큰 문제임.
- 이란 경제 중 인프라 구축이나, 가스, 석유 산업에 크게 관여함.
- 실제로 이란혁명수비대 컨소시엄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. 또한 이란의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Iran(TCI)을 매입함.
- 로하니 대통령 당선 이후 혁명수비대의 경제 활동이 잦아드는 추세이지만, 외국인 투자자들은 혁명수비대 이슈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

□ 정보출처 :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

5 호주 2016년 1분기 교역 통계 발표

□ 호주 외교통상부(DFAT)은 2016.5.10(수) 2016.1분기 교역 통계를 발표함.

○ 수출은 774억 호불, 수입은 859억 호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 △5.4%, △1.1% 하락함.

2016년 호주 교역 현황

(단위:

억호불)

구 분	2016 1분기	2015 1분기	2015
수 출	774	818	3,166
수 입	859	869	3,527
수 지	△85	△51	△361

* 자료: 호주 외교통상부

○ (품목별) 품목별 수출은 서비스(192.2억 호불), 자원(153.3억 호불), 석유, 가스 등 에너지(139.8억 호불), 식품(91.2억 호불) 등 순임.

- 자원(△16.4%), 에너지(△15.4%)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과 서비스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총액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.

* 식품 수출 추이(억호불): 28.62('16.1) → 30.21('16.2) → 32.32('16.3)

* 서비스 수출 추이(억호불): 58.80('16.1) → 64.05('16.2) → 66.31('16.3)

- 유학 및 관광 등 서비스 수출은 호주화 약세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다른 품목들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, 자원, 에너지의 경우 국제 자원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- (국가별) 국가별 교역은 중국(317.3억호불), 일본(123억 호불), 미국(99.34억 호불), 한국(75.04억 호불), 태국(44.26억 호불) 순으로 한국, 미국, 태국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 2.9%, 2.9%, 1.7% 증가한 반면, 중국, 일본은 각 △4.5%, △19.4% 감소함.

2016년 호주 국가별 교역 현황

(단위:

억호불)

구 분	2016년 1분기		2015년 1분기	
	수 출	수 입	수 출	수 입
중 국	175.54	142.09	190.82	142.03
일 본	82.13	41.03	109.62	43.28
미 국	30.83	68.51	31.89	64.59
한 국	42.28	32.76	44.87	28.02
태 국	8.92	36.1	13.04	31.22

* 자료: 호주 외교통상부, 통계청

- 호주의 수출은 중국, 일본, 한국, 미국, 인도 순이나 전년 동기대비 전체적으로 각 △8.0%, △25.0%, △5.7%, △3.3%, △17.6% 감소하였으며, 이는 철광석과 석탄 등 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

* 국제 철광석 가격 추이(USD/톤): 69.75 ('15.1.19) → 65.75 ('15.2.16) → 60.00 ('15.3.17) → 41.90 ('16.1.19) → 43.80 ('16.2.17) → 57.10 ('16.3.15)

- 호주의 수입은 중국, 미국, 일본, 한국, 태국 순으로 일본은 전년 동기대비 5.2% 감소하였으나 중국(0.04%), 미국(6.1%)은 소폭 한국(16.9%), 태국(15.6%)은 대폭 증가함.